

문화의 새로운 차원 ‘경직성과 유연성 (Tightness-Looseness)’

정태연 중앙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Michele J. Gelfand University of Maryland
--------------	---------------	--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에 근거하여 문화가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고, 그 밖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새로운 차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의 또 다른 차원인 경직성과 유연성(tightness-looseness)을 이론적으로 개관하여 사회 및 조직심리학 분야에서의 문화 이론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때 문화의 경직성과 유연성은 특정 문화 내에서 규범이 명백하게 정의되고 신뢰롭게 집행되는지의 정도를 지칭한다(Pelto, 1968).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의 문화적 경직성-유연성을 살펴보고,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경계·문화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상황적 구조, 그리고 문화적 체계에서의 심리적 과정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다수준 이론(multilevel theory)에 따른 접근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경직성과 유연성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들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문화의 차원, 개인주의-집합주의, 사회규범, 경직성-유연성, 다차원 이론

지난 20여 년간 문화가 사회심리학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발단은 서구의 문화적 맥락에 근거한 연구결과가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비록 사회 및 조직 심리학 대부분이 서구 사회에서 태동하여 발전해 왔지만, 서구적 맥락이 인류사회의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화 관련 연구들 특히, 비교문화 연구들이 사회 심리학 이론과 연구에서 무엇이 보편적이고(etic) 무엇이 문

화-특수적인지(emic)를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생산적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문화를 이해하는데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점이다.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등장했고(김기범, 김의철, 1995; 이종한, 1992; 정양은, 1976; 조공호, 2003; 조영호, 2002; 차재호, 정지원, 1993; 최상진, 2000; 한규석, 1991a, 1991b, 1997, 2003; 한성열, 이홍표, 1994; Choi & Choi, 1994, 2001; Choi & Kim,

정태연은 중앙대학교, 김기범은 성균관대학교, Michele J. Gelfand은 University of Maryland에 재직하고 있음.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2-H00010).

교신저자 : 김기범,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purple66@skku.edu

2003; Hofstede, 1980; Kim & Kim, 1997; Triandis, 1989, 1995; Markus & Kitayama, 1991), 많은 저서 (Triandis, 1995; Kim, Triandis, Kagitcibasi, Choi, & Yoon, 1996; Smith & Bond, 1993 참조)와 개관논문 (Bond & Smith, 1996; Triandis, 1990 참조)이 나타났다.

실제로 『비교문화심리학편람(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ume 3)』의 신판 서문에서 Segall 과 Kagitcibasi(1997)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이 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개인주의-집합주의는 현재 많은 비교-문화 사회심리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리스틱(heuristic)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의 연구분야에서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를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차원으로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차원을 쓰고 있다(p. xxvii).”

Hofstede(1980)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개인 간 결속이 느슨한 사회를 의미하고 집합주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서부터 강하고 끈끈한 내집단에 통합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이미 Hofstede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지만, Hofstede의 주요한 기여는 53개국을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식화했다는 점이다. 그 후 Triandis(1995)는 개인과 국가라는 분석수준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개인중심주의(idiocentrism)와 집단중심주의(allocentrism)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각각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함으로써,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에서 국가간 차이 뿐 아니라 개인주의 혹은 집합주의 내에 속한 사회들 간의 비교를 가능케 했다.

개인주의-집합주의 연구자들이 목적하는 바는 행동상의 문화차이를 설명하는데 이 차원의 유용성을 밝히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차원을 과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왔다. Triandis(1995)는 개인주의-집합주의를 폭넓게 적용할 때 그 위험성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것에 망치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의미를 날카롭게 다듬지 못한다면 그 개념을 과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p. 2).”

사회 혹은 문화 전체를 이분법적인 분류로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남성적-여성적, 능동적-수동적) 그 사회적 실체가 가지는 보다 미묘한 질적인 차이들을 간과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식으로 명명해서 기술할 경우 특정 문화나 사회가 가지는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적절하게 고착되고 다소 과장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흑백논리의 개념으로 문화를 제시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문화를 좋고 나쁨의 차원에서 비교하게 된다(Au, 1999; Voronov & Singer, 2002).

또한, 집합주의-개인주의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행동 및 성격이 개인주의-집합주의와 갖는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Hui, Triandis와 Yee(1991)는 관대함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주의-집합주의를 통제했을 때 중국과 미국 간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즉, 개인주의-집합주의가 관대함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Voronov & Singer, 2002에서 재인용). 개인주의와 국가경제수준 간의 강한 상관을 주장한 Hofstede(1980)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서구의 개인주의 가치가 경제성장과 발달을 이끌었다는 비약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런 논리는 일부 동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의문시되었다. Yu와 Yang (1994)은 동아시아 국민들의 성취동기가 사회적으로 지향된 것으로, 북미 및 유럽 사람들의 개인 지향적 성취동기와는 다름을 지적하고, 개인주의와 경제 성장간의 관계는 일종의 환상임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집합주의를 근대성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Kagitcibasi(1997)에 따르면, 효, 조상 숭배, 남존여비 등 집합주의적 관행 등은 심리학적 집합주의보다는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Bond(1994) 역시 개인주의는 근대화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에 따른 차이로 해석한 결과들이 교육이나 고용의 유형, 환경의 도시/시골 여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들로 설명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집합주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성공함으로써 나타난 하나의 결과로, 문화의 그 밖의 차원들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으며, 소수의 연구들마저도 주목 받지 못했다. 가령, 일부 연구자들은 문화적 복잡성(complexity)을 개인주의와 그리고 단순성(simplicity)¹⁾을 집합주의와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Triandis & Suh, 2002).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짐에 따라 문화를 단순성-복잡성의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은 산업화 이전 사회를 기술하는 데나 유용할지도 모른다. 이밖에도 문화를 고맥락-저맥락(high context-low context culture)²⁾(Hall, 1976; Kim, Kim,

Pan, & Park1998)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저명한 비교문화 심리학자들이(Bond & Smith, 1996; Kagitcibasi, 1997; Schwartz, 1994; Triandis, 1995) 문화의 한 차원으로서 개인주의-집합주의가 갖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사회 및 조직적 현상들을

1) "Cultures differ in complexity. The most contrast is found between hunters/gatherers and information societies. Gross national product per capita, although not sufficient, is one index of cultural complexity. Other indices include the percent of the population that is urban, the size of cities, personal computers per capita, etc(Triandis & Suh, 2002, p. 139)."

2) Edward. T. Hall(1976)은 문화적 지향성에서의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고맥락-저맥락의 개념을 제안했다. 이 개념은 문화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유대, 책임, 약속, 사회적 조화, 의사소통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그는 문화적 성향의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맥락적인" 면을 강조하는 고맥락과 저맥락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고맥락과 저맥락을 하나의 연속체상에서 양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시도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고맥락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친밀한 관계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위계적인 구조가 존재하고, 강한 자기 통제(self-control)를 통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정보는 드러난 말보다는 숨은 의미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저맥락 문화에서는 사람들은 매우 개인적이며,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의 생활에 대해 강요하는 경우가 적고,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좀 더 명시적이고 공격적이다. 고맥락 문화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이다. 유대관계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 동료, 공동체, 사회로 확대된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약속과 기대, 상호호혜를 포함하고 있다. 고맥락 문화는 동조와 집단지향을 강조하고, 따라서 외부 사람에 대한 배척이 심하다. 저맥락 문화에 비해서 연줄과 우호관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저맥락 문화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지기 쉽고,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집단을 떠나거나 탈퇴하기 쉽다. 둘째, 고맥락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강한 영향과 응집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처음으로 하는 약속이나 계약은 종종 평생 동안 맺는 관계의 시작이 된다. 달리 말하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나 분야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꺼려한다. 이럴 경우,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의 소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저맥락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셋째, 책임과 관련해서 고맥락 문화에서의 책임은 사회적 태도와 약속에 관련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 하향식 의사결정 과정은 고맥락 문화에서 조직운영에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이다. 저맥락 문화에서는 책임 여부가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어 명확한 소개파악이 힘들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종종 아랫사람이 회생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고맥락 문화에서는 사람들 간의 조화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의견충

돌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종종 자신을 억제한다. 예의와 정중함을 유지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한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에서는 체면 유지 개념이 강하게 드러난다.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상황 등에서 우회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의견대립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달리 말하면, 개인주의나 사소한 의견차, 사람들 간의 충돌 등이 없는 척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의견차와 분노를 보여주는 것은 자기 조절에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양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의견차이가 드러나고 불가피하게 논쟁해야 할 때는 표면상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큰 일이 된다. 사람들은 강한 유대로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달리 말하면, 저맥락 문화보다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더 발달해 있다. 보여주어야 하는 것과 감추어야 하는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사회적 규칙이 형성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반면에 저맥락 문화에서 사람들 간의 충돌은 아무런 경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다. 자신의 표현이나 의견을 회색해서 직접적인 의견충돌을 피하려 하지 않으며 비판은 좀 더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를 취한다. 이와 반대로, 고맥락 문화에서는 말 자체의 뜻보다 내포하고 있는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충돌을 포착하기 어렵고 표현은 언어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컨대, 저맥락 문화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고맥락 문화에서는 문제를 감추는 경향이 강하다. 다섯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고맥락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행동적인 맥락과 내재화된 맥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은 있는 그대로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그 말을 할 때 적절한 맥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맥락 문화에서 의사소통은 경제적이고, 빠르고, 효과적이며, 만족스럽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는 큰 사업도 충분한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 가지 약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호 밀접한 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맥락 문화에서 정보는 명시적인 형태로 주어지며 상황이나 배경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명시적 의사소통을 신뢰한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어떻게 말한 것인지가 아니며 말하는 환경과는 관련이 없다. 여섯째,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에서 저맥락 문화의 사람들은 각 개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저항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어떤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창조적인 자세로 대하고, 과도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상황에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일지라도, 구체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고맥락 문화는 구체제에서는 창조적이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가 매우 느리다.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문화적 측면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문화에 대한 연구가 서구에 대한 단순한 도전(Triandis, 1994)으로부터 문화이론과 연구에 문화가 갖는 복잡성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또 다른 차원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격 심리학에서 성격의 한 차원에만 한정해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할 때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개인주의-집합주의에만 한정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비교-문화 이론과 연구를 크게 제한하고 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의 또 다른 차원인 '경직성-유연성(tightness-looseness)'³⁾을 살펴봄으로써 사회 및 조직 심리학에서의 문화 이론을 확장하는데 있다. '경직성-유연성'은 특정 문화 내에서 규범이 명백하게 정의되고 신뢰롭게 집행되는지의 정도를 지칭한다(Pelto, 1968). 이 구성개념의 이론적 형성은 인류학자인 Pelto (1968)로 거슬러 가는데, 그는 전통사회들이 사회적 규준을 고수하고 표현하는데 다양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Pueblo 인디언과 Hutterite(후터파, 종교집단)들을 경직된(tight) 문화로 명명하면서, 이 두 사회 모두 규범이 엄격하게 정형화되어 있고, 구성원들은 이러한 규범을 지키도록 강하게 훈육되어 높은 규범 추종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그는 타일랜드와 북부 핀란드의 Skolt Lapp족을 느슨한(loose) 문화라고 명명하면서, 규범이 폭넓고 다양한 대안적인 방식을 통해 표현되며 규범 동조에 대한 훈육이 부재한다고 평가했다.

불행히도 Pelto(1968) 이후로 이러한 문화적 차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이론이 거의 없다가 최근 Triandis(1989, 1994)가 심리학 문헌에서 경직성-유연성을 다시 소개하면서 이 차원을 개인주의-집합주의 및 문화적 복잡성과 같은 차원들과 구분했다. Hofstede (1980) 역시 문화적 경직성(tightnes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확실성 회피 차원이 이 구성개념을 조작하는데 쓰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이 구성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연구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3) 본 연구에서는 cultural tightness-looseness를 번역할 때 문화 내의 사회규범이 갖는 의미를 중요시하여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회규범의 경직성과 유연성으로 번역하였고, 내용에서는 '경직된-느슨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후, 본 논문의 공동연구자 중 한명을 포함하여 몇몇의 연구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문화를 문화적 경직성-느슨함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분석하였으며(Chan, Gelfand, Triandis, & Tzeng, 1996), 이 차원에 대한 다수준 이론(multi-level theory)을 제시하였다(Gelfand, Chan, Triandis, Yamguchi, & Nishii, 1998). 이 이론은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를 통합하고, 경제·문화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상황의 구조, 그리고 경직성과 느슨함의 문화적 체계에서의 심리적 과정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론에 초점을 두어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의 문화적 경직성-느슨함을 살펴보고, 문화의 한 차원으로서 경직성-느슨함 차원에 대한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필요한 연구들을 제시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다수준에서 드러나는 문화의 상이한 모습들을 그려봄으로써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차원이 가지는 유용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문화적 경직성과 유연성에 대한 다차원 이론의 개관

문화적 경직성과 느슨함 차원에 관해 개발된 이론이 거의 전무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우리의 개념화 작업을 뒷받침해주는 특성들에 대해 논의를 펼쳐왔다. 이에 다차원 이론(그림 1)은 인류학(Douglas & Wildavsky, 1982; Pelto, 1968)과 사회학(Goffman, 1963), 비교문화 심리학(Berry, 1976; Gabreyna, 1999; Georgas & Berry, 1995; Hofstede, 1980; Triandis, 1989, 1994), 사회심리학(Fiske & Taylor, 1991; Higgins, 1987; Mischel, 1977; Price & Bouffard, 1972; Webster & Kruglanski, 1994)에서의 선행 연구들을 통합하고 확장한 것이다. 또한, 다차원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경직성은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같은 차원의 여러 요인들은 서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수준이 다를 경우 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으며(Hannan, 1971; Roberts, Hulin & Rousseau, 1978; Rousseau, 1985), 이들 수준 간에는 기능적인 관계가 있다(Chan, 1998).

이 다차원 이론의 가정은 경직된 문화와 느슨한 문화의 생성 및 지속이 분석의 다양한 수준에서 생겨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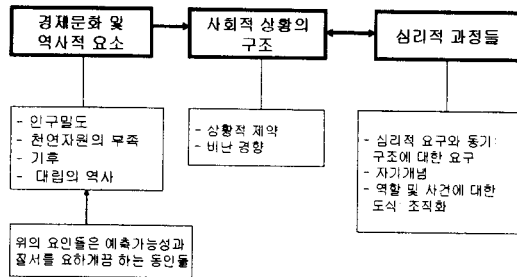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의 경직성-느슨함 체계(Gelfand et al., 1998)

것이다. 특히, 문화적 경직성과 느슨함이 경제·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요인들과 사회적 상황의 구조, 그리고 심리적 과정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 첫째, 분석의 가장 거시적인 수준에서 경제문화 및 역사적 요인은 문화권 내의 질서와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가령, 높은 인구 밀도나 자원의 부족, 외세의 위협을 받았던 역사적 요인들은 사회 환경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구조를 창출할 필요성과 연관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문화권 내에서 강한 상황 대 약한 상황이라는 상황적 힘과 연결된다(예로, Mischel, 1977). 강한 상황은 부적절한 행동을 검열하는 속성을 증가시키고 수용 가능한 행동 패턴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약한 상황은 수용 가능한 행동을 폭넓게 설정하고 개인에게 거의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시와 미시의 중간 수준에서 문화적 경직성과 느슨함이 '상황적 제약' 또는 문화권내 다양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행동의 범주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Price & Bouffard, 1974). 미시적 수준에서, 문화적 맥락으로서 강하거나 약한 상황에 맞춰 나가기로 개인을 훈련해서 적응시키는 다양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Kitayama, Matsumoto, Markus, & Norasakkunkit, 1997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느슨한 문화 체계에 비해 경직된 문화 체계에서의 개인은 일반적으로 더 구조화되어 있고, 불확실성에 대해 덜 관용적이며, 제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지침으로서 몸에 밴 의무사항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경직된 문화 체계에 있는 사람들의 스키마(schema)는 약한 상황보다는 강한 상황의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하고 개인

간 다양성을 덜 반영할 것이다. 스키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속성 및 그 속성들간의 관계를 포함한, 상황에 대한 개념 또는 유형과 관련된 지식을 나타내는 인지적 구조”를 말한다(Fiske & Taylor, 1991, p. 98).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스키마의 구조와 더불어 그러한 심리적 과정, 가령 개인의 요구, 동기, 자기지침들은 더 큰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강한 상황의 우위를 반영하고 뒷받침해준다. 또한, 심리적 과정이 강한 상황에 일관되게 맞춰진 개인은 개인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약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반응 유형을 적절하게 창출하거나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한 상황에 맞춰진 심리적 과정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강한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단서에 집중하고 사회적으로 제재하는 행동을 취사선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경직성-느슨함 차원에 대한 간단한 개관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황의 강도가 경제문화 및 역사적인 측면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 다음, 이 차원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이 차원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이 차원과 관련된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특성들을 살펴보겠다.

문화적 경직성-느슨함 차원이 경제문화 및 역사적 요소와 갖는 관련성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적 경직성-느슨함에 대한 다차원 이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황이 그 문화권 내의 특수한 경제 및 역사적 특성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인구밀도와 활용 가능한 천연 자원, 기후 및 갈등의 역사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질서 및 예측 가능성의 정도를 각기 그리고 집합적으로 결정하는 힘이라고 보고,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황의 강도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구밀도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국가에서는 높은 상황적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국가에서는 낮은 상황적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밀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보니 극

단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래서 개인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큰 개인차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으로 혼란스런 상황들을 조직하고 통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보다 더 엄격한 규칙과 제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인구 밀도의 사회에서는 행동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적절한 행동을 엄격하게 강제할 수 있는 분명하고 압력이 강한 상황들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극단적으로 과밀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황적 규범이나 제재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Chan et al., 1996). 말하자면, 인구가 지나치게 많을 때, 사회적 시스템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 인구 밀도와 상황적 경직성 간의 관계가 곡선적일 수 있다.

천연자원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낮은 상황적 제약을 보이는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높은 상황적 제약을 보일 수 있다.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문화권에서는 사회를 유지하고 생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규칙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Lomax와 Berkowitz(1972)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통합의 정도를 통해 문화적 경직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백여 개 이상 전통사회의 사회 및 정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문헌 정보에 근거하여, 이들은 채집과 농경사회가 수렵 및 어획사회보다 더 경직되게 결속되어 있으며 후자는 보다 더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들은 채집과 농경사회가 상대적으로 동시적 의사소통과 질서정연함, 결속력 등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천연 자원의 부족한 사회는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강한 상황을 유도하는 동시성과 통합성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각 나라의 경지, 식량 생산 및 토지 사용의 퍼센트 등

과 같은 농업 자원 및 천연 자원에 대한 국제적 지수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기후

극한의 추위가 높은 상황적 제약과 관련될 수 있고, 온화하거나 더운 기후는 낮은 상황적 제약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호모 사피엔스는 온화한 기후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추운 기후에서는 그러한 환경에 맞서 생존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규칙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Triandis(1994)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기후와 문화적 경직성간의 관계 역시 우회적일 수도 있다. 가령, 극한의 추위 또는 더위에 대한 인간의 적응은 살아남기 위한 상황적 규칙과 보다 많은 통합을 필요로 하는 바, 기후와 사회적 상황의 강도간의 관련성은 직접적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경험적인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 갈등의 역사

외부 세력과의 갈등을 경험해 본 역사가 있는 국가들은 보다 강한 상황적 제약을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보다 약한 상황적 제약을 보일 것이다. 외부와의 갈등을 겪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우려가 있는(또는 실제로 받은) 나라들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부 질서와 결속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일어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도구적 기능을 갖는다. 실제로 외부 세력이 위협을 가해올 때 내부의 규준과 결속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Sumner(1906)가 적절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외부와의 전쟁은 내부의 평화를 조성하고, 내부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며, 전쟁에 대한 우리-집단의를 강화한다.”(p. 120) 따라서 외부의 위협을 경험한 역사는 허용 가능한 다양성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강한 상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지난 세기 동안 외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단일성

마지막으로, 단일 국가는 다원적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상황적 제약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이

하나의 선행조건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단일성은 강한 상황을 생성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단일한 문화권(가령, 일본, 독일)에서는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적합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더 많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적합한 행동에 대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이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이탈한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반면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집단들은 서로 다른 가치체계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 적합한 행동의 기준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결국 적합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합의를 하기가 보다 어렵게 된다(Chan et al., 1996).

결과적으로 이질적인 문화권에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수용 가능한 행동의 범위도 더 넓어질 것이다. 이질적인 문화권에서는 종종 그 경계 안팎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교차하는 특성을 보이는데(가령, 태국), 따라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홍콩은 서양(즉, 영국)과 동양(즉, 중국)의 문화가 교차하고 있고, 태국은 인도와 중국 문화권의 교차지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측면은 단일성 지수(Kurian, 1997)를 사용하여 단일성과 상황적 제약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민족 단일성 지수'는 문화권의 지형적 교차지점에 대한 지수들에 따라, 인종, 언어, 종교에 있어서의 단일성에 대한 한 국민의 분포(퍼센트)를 나타낸다.

사회적 상황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경제문화 및 역사적 요소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황의 강도 가령, 특정 사회의 질서 및 예측가능성에 대한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상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문화적 경직성-유연성에 대한 다차원 이론에서는 사회적 상황의 구조가 경제문화 및 역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간의 핵심적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금까지 사회심

리학 영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문화 관련 연구는 문화 체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사회적 상황의 구조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예외 가운데 하나로, Kitayama et al., 1997).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심리적 환원론은 문화를 가지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 과정들로 환원하면서(Gabreyna, 1999), 경제문화적 조건이나 좀 더 거대한 사회적 구조들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이상주의적 접근'의 한 대안으로서, 다차원 이론은 생태학적 접근(Georgas & Berry, 1995; Whiting & Whiting, 1974)에 근거하고 있다. Gabreyna(1999)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이념 및 이념의 심리적 상관물인 가치 및 성격과 같은 정신현상을 다루는 방식에서 이상주의적 접근과 다르다. 생태학적 접근은 기술, 제도, 역사, 사회적 구조와 같은 문화적 수준의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자연 환경의 생태적 토대를 고려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수준적이며 이러한 수준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한다(p. 334).”

따라서 사회적 상황의 구조는 문화적 경직성과 유연성에 대한 다차원 접근에서 이론 및 측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 상황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문화적 경직성과 유연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상황의 강도를 통해 드러남을 미시와 거시의 중간 수준에서 밝히고자 한다. 경직된 문화체계 내에서 사회적 상황은 개인들이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정형화된 기대를 유발하고,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경우에 충분한 이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하다고 할 수 있다(Mischel, 1977).

달리 말하면, 강한 상황은 개인이 행동을 판단할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기대되고 수용가능한 행동의 범주를 전제하고 제한한다.”(Mischel, 1977, p. 347) 강한 상황은 이처럼 분명한 행동상의 요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높이는 것과 결부된다. 반면, 약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행동의 범주가 넓고 개인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제약이 거의 없다(Mischel, 1977). 간단히 말해, 강한 상황은 높은 상황적 제약과 허용되는 행동 범주에 대한 제약을 가한다.

실제로,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조금 다른 어조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논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강한 상황과 약한 상황의 구분과 유사하게, Goffman(1963)은 상황이 적절한 행동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그 정도의 연속선상에 특정 상황들을 위치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Goffman의 용어에서 '경직된'과 '느슨한'은 사회적 상황이 요구하는 제재의 양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이 연속선 상의 한 극단은 상황이 개인들을 좀처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제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공원에서 하는 행동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다른 한 극단은 이미 정해진 규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인데, 장례식과 같은 의례적 상황을 경직된 상황의 한 예이다.

사회 체계에 대한 '격자집단(grid-group)' 분석을 통해, Douglas와 Wildavsky(1982)는 Mischel과 Goffman이 논의한 것과 유사한 구분을 제시했다. 특히, Douglas는 촘촘한 격자 사회체계에서는 행동의 선택권이 거의 없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형화된 방식으로 행동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듬성만 격자 사회체계에서는 행동에 많은 선택권이 있으며 행동이 보다 자발적이고 유연하며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해서 볼 때, Mischel(1977), Price와 Bouffard(1974)의 용어를 따르자면 문화를 포괄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상황을 감합 대(對) 약합의 정도에 따라(즉 높거나 낮은 상황적 제약을 가지는 정도) 구분할 수 있고, 중간 수준에서는 문화적 경직성과 유연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달리 말해, 모든 문화권은 강하고 약한 상황을 모두 가지고 있겠지만, 문화권에 따라 강한 혹은 약한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문화의 경직성-유연성 차원에 따른 심리적 과정들

문화적 경직성-유연성에 대한 다차원이론에서는 개인 수준의 구성개념 또는 심리적 현상 중에서 선택된 일부를 고려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큰 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는 강하거나 약한 상황이 개인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직된 문화권에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은 강한 상황을 지지하는 특성을 가지는 반면, 느슨한 문화권에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은 약한 상황을 지지하는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스키마 구조와 함께 심리적 요구와 동기, 자기(self) 등을 포함한다. 강한 상황이 우위를 점유하는 문화 체계에 속한 사람은 약한 상황이 우세한 문화권의 사람에 비해 명백한 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모호성에 대해 덜 관용적이며, 사회적 제재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의무를 더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약한 상황보다는 강한 상황이 우선하는 문화 체계에 속한 사람들이 역할 및 사건 스키마를 서로 더 많이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환경의 구조와 심리적 과정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인과관계를 보인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개인 수준의 구성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에 대한 요구/모호성에 대한 허용

구조에 대한 요구는 지각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리킨다(Jamieson & Zanna, 1989). 낮은 구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조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환경을 더 선호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형화된 사회적 스크립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Neuberg & Newson, 1993). 반대로, 느슨한 문화적 체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문화적 맥락에서 우선하는 약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구조를 보다 덜 요구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직된 문화적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 문화의 맥락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강한 상황들에 직면하여 구조에 대하여 더 많이 요구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호성에 대한 허용이란 개념은 친숙하지 않거나 조화롭지 않은 일련의 사회적 단서들에 직면했을 때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개인의 방식을 가리킨다. 모호한 상황들과 마주쳤을 때 그러한 상황에 대한 허용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겪고 미성숙한 반응을 보이며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모호성에 대한 허용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바람직하거나 자극적이

고 흥미로운 것으로 지각한다(Budner, 1962; Eysenck, 1954; Frenkel-Brunswick, 1949).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다차원 이론은 경직된 문화적 체계, 즉 강한 상황이 지배적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모호한 상황에 대해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하며,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더 미숙하고, 어떤 사회적 제재를 보이는 더 강한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상황적 제약이 낮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상황적 제약이 높은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모호성을 더 허용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제재에 대한 관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한 상황일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나아가, 강한 상황이 지배적인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강한 상황을 발생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과정들을 발달시킬 것이다. 따라서 높은 상황적 제약을 갖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낮은 상황적 제약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더 많이 주목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경향이 더 많으며, 제재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느슨한 문화적 체계에서는 일탈이 주목을 받을 때조차도 더 많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Chan et al., 1996).

개념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Altemeyer(1981)의 일탈에 대한 공격성 개념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 개념은 권위주의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차원 이론에서는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권위 그 자체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적 대중들과 관련된다 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그 문화적 맥락을 이루는 상황의 강도를 유지하고 환경 속에서의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높게 된다.

자기 개념

개인의 자기 개념은 경직된 문화 체계와 느슨한 문화 체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기-불일치 이론(Higgins, 1987; Strauman & Higgins, 1987)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의 자기 지침, 즉 이상적 자기 지침과 의

무적 자기 지침 두 가지가 있다. 이상적 자기 지침이란 한 개인이 되길 원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을, 의무적 자기 지침은 그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두 가지 지침 모두 개인 각자의 관점 또는 타인에 의해 일반화되거나 혹은 구체화된 관점에 의해 공고화된다. Higgins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지침은 현실적 자기와의 불일치, 그리고 자기지침의 강도(strength) 및 근접성 모두에 걸쳐 우리의 생각 및 행동과 관련된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Higgins, Shah와 Friedman(1997)은 이상적/의무적 자기 지침에 대한 근접성과 강도에서 안정적인 개인차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개인차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즉, 높은 상황적 제약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무적 자기지침(그리고, 특히 일반적인 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에 노출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자기)규제에서 일탈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Higgins et al., 1997). 실제로 Higgins(1996)은 이를 '규범적인 의무 지침'이라 부르고 자기지침에 대한 근접성이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대로, 상황적 제약이 낮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상적 자기지침에 두드러지게 노출될 것이다. 즉, 낮은 상황적 제약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이상적 자기지침에 대한 근접성을 오랫동안 지녀오고 어떤 행동을 증진하는 데 보다 많은 초점을 기울일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Higgins et al., 1997). 문화의 경직성-유연성 차원에 대한 다차원이론에서는 그러한 자기지침의 근접성에서의 차이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의 서로 다른 유형에 적응하고 맞춰 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가정한다.

역할 및 사건 스키마에 대한 구조

다차원이론은 상황적 제약에서 역할 및 사건 스키마의 구조 역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기서 역할 스키마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에 놓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조직화하는 반면(가령, 지배인이나 지도자 등), 사건 스키마는 유기적인 행위에 관한 정보를 조직한다. 다차원이론은 문화권에 따라 스키마는 각기 강한 대략한 상황의 우위를 반영하면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한다. 특히, 상황적 제약이 높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내적으로 보다 일관적이고 사람들간 다양성이 떨어지는 역할 및 사건 스키마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상황의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인지

지속적으로 강한 상황에 노출되는 문화권에서는 행동을 통제하는 데 미치는 개인차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서는 사회적 상황을 기호화하고 분류하고 명명하는 방식에서 개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문화권내에서 사람들이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때, 강한 상황이 지배적이라면 보다 더 많은 공유된 스키마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 대신, 문화적 맥락상 약한 상황이 지배적인 경우라면 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스키마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간략히 말해, 개인마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스키마를 발달시킬 것이고(최상진, 2000; Strauss & Quinn, 1997) 이러한 현상은 상황적 제약이 낮은 문화권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스키마의 내적 일치성

강한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이 적합한지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낮은 제약보다는 높은 제약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역할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높은 상황적 제약을 갖는 문화권에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일관된 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이는 경직된 문화권에서는 역할이 정해지고 받아들여지는 반면, 느슨한 문화권에서는 역할이 변형되고 반박된다는 주장과도 일관된다. 따라서, 높은 상황적 제약의 문화권에서는 유사한 행동 유형을 닦아가도록 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스키마 구조간의 연결이 견고해지기 때문에(Kandel, Schwartz, & Jessell, 1995), 역할 스키마 내의 요소들은 낮은 상황적 제약의 문화와 비교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된다(즉, 내적으로 일관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세계의 조직화는 내부세계의 조직화에서도 드러나며 이는 문화권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문화적 경직성-유연성과 관련된 다른 문화 차원과의 비교

지난 몇 십 년 간 연구문헌들은 문화적 변인에 대한 다양한 수준들을 다뤄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ofstede(1980)은 53개 국가의 IBM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원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를 제공한 바 있다. 생태학적 요인 분석을 통해 그는 4개의 문화 변인의 차원을 밝혔는데, 즉 권력 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집합주의, 남성주의-여성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차원들을 다른 문화적 가치 자료들(Schwartz, 1994)과 함께 상황적 제약에 대한 측정과 비교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차원 이론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제약에 대한 측정은 불확실성 회피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관련성이 이론에 대한 수렴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밝혀줄 것이다. 불확실성 회피는 모호한 상황에 의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말하는데(Hofstede, 1980), “직장에서 얼마나 자주 신경이 곤두서거나 구속을 느낍니까?”, “회사의 규범은 최대 이윤을 위한 것일 때라도 깨어져서는 안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IBM에서 계속 일할 생각입니까?” 같은 세 가지 질문으로 평가되었다. 다차원 이론에서의 개념과 일관되게, Hofstede는 불확실성 회피 국가에서는 회사의 규칙을 깨지 않는 행동을 선호하고 그것을 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그는 불확실성 회피가 문화적 경직성을 조직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상황적 제약과 Hofstede(1980)와 Schwartz(1994)의 개인주의-집합주의 측정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적 제약과 개인주의-집합주의간에는 관계는 작을 것이다(Triandis, 1989, 1994). 달리 말해, 높은 상황적 제약이 개인주의 국가(독일, 벨기에 등)에도 존재할 수 있고, 낮은 상황적 제약이 집합주의 국가(태국, 홍콩 등)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Triandis(개인적인 의견교류)는 이러한 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를 .30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집합주의와 불확실성 회피간에 보인 상관(Hofstede, 1980)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문화적 경직성과 유연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 및 기대효과

지금까지 개관한 사회규범의 경직성과 유연성 차원은 개인주의-집합주의와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문화적 특성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 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학이나 인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문화의 또다른 차원으로 복합성과 단순성, 고맥락 및 저맥락 문화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Triandis & Suh, 2002). 그러나 문화의 새로운 차원인 경직성과 유연성에 대한 다차원 이론은 특정 문화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는 그 문화의 경제적, 역사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특정 문화적 특성에 노출된 사람들은 행동적, 심리적으로 다른 문화적 특성에 노출된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다수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경직성-유연성 차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 먼저,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인 Gelfand와 그녀의 동료들이 현대사회의 문화적 경직에 대해 수행한 몇몇 예비 연구가 있다(Chan et. al., 1996; Gelfand, Chan, Triandis, Yamguchi, & Nishii, 1998). 이러한 연구가 다수준 이론의 시각들 내에서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론의 주요 골자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들이 비교한 일본과 미국의 문화는 각각 경직되고 느슨한 문화권으로 가정되었다(Hofstede, 1980; Triandis, 1989).

첫 번째 연구에서는(Chan et. al., 1996), Osgood, May와 Mirons(1975)의 "Atlas of Affective Meaning"에서 나온 225개의 개념에 대한 지각에서의 문화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경직된 문화권에서 보다 많이 공유된 인지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일관되게 일본에서는 미국에 비해 의미에 대한 합의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개념의 의미에 대한 합의는 어떠한 규범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대화속에서 별다른 수고없이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경직된 문화권에서 기능적이다.

Gelfand 등(1998)은 미국보다 일본에서 상황적 규범이 더 강하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위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조사했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20개의 다른 상황들에 미국 응답자(165명)보다 일본 응답자

(165명)들에게서 상황적 규범에 대한 지각된 순응이 더 높게 나타났고, 상황적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에서 다양성이 더 낮았다. 예를 들면, 행사에 적절한 옷이라는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린다는지 하는 규범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경직된 대 느슨한 문화 체계에서 제재에 대한 관심과 상황의 강함에 대한 개념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문화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나은영, 민경환, 1998; 정태연, 김지영, 김기범, 김양하, 2004; 조공호, 2003; 차재호, 정지원, 1993; 최상진, 2000; 한규석, 1991b, 2003; Cha, 1994; Choi & Choi, 2001; Choi & Kim, 2003; Kim, et. al., 2004; Kim & Kim, 1997; Kim, Pan, & Park, 1998 등)을 통해, 한국 문화가 집합주의로 분류되고, 관계를 중요시하며, 대인간의 윤리나 사회 규범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및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유교주의 사상일 것이다. 문화의 차원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Au, 1999; Sternberg, 1982; Kim, Pan, & Park, 1998)이 지적하듯이, 실제 한국을 포함한 극동문화권에서 집합주의 특성이 나타나고, 사회적 상황이 극히 제약적인 것은 유교주의 때문일 수 있다.

정태연 등(2004)과 Kim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연평균 기온이 더 낮아서 미국에 비해 춥다. 또한 역사적 기록에서 보면 많은 전쟁과 외침이 있었다(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1999; United Nations, 1998 참조). 비록 건국의 역사가 짧지만 미국의 경우 매우 적은 수의 전쟁을 경험했을 뿐이다. 이러한 생태-환경적, 사회-역사적 요소들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서 문화적 경직성이 강한 문화라고 앞의 이론적 근거를 들어 추론해 볼 수 있다.

문화적 경직성의 국가간 차이는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사회가 가진 규범의 명확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질문문항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가 가진 규범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규범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M=4.84$)이 지각하는 사회규범의 명확성은 미국($M=4.60$)에 비해 더 높았다.⁴⁾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문화적 경직성이 높으며, 한국의 사회구성원들이 미국의 사회구성원들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나 욕구보다는 주변인들의 기대나 사회규범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한국인들의 행위와 심리적 특성은 앞서 설명한 생태-역사적 환경과 사회적 상황의 구조에 기인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직된 문화적 체계에서의 사회 구성원은 구조를 더 필요로 하고, 불확실성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하며, 제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지침의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경직된 문화체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지적 도식은 경직된, 강한 상황의 우위를 반영하고, 개인 간 다양성이 비교적 적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이 갖는 한 함의는 심리적 과정이 강한 상황에 적응해 온 사람들이 변형된 반응 유형을 창출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직면할 때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고, 비교적 약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한 심리적 과정을 갖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제약이나 제재를 받는 행동을 선택해야 할 경직된 상황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문화적 경직성에 대한 다차원적 이론은 문화 간 인간의 심리적 및 행동적 차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간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문화 간 인간의 행동적 및 심리적 차이가 그들의 내재적인 속성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에 주로 근거한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또한,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적응적이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세계화와 국제화의 시대에 문화 간 교류가 빈번한 오

늘날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앞으로 다차원 이론을 검증하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기범, 김의철 (1995). 갈등과 중재: 대인간의 갈등 상황에 대한 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355-376.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이종한 (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6-93.
- 정양은 (1976). 심리구조이론의 동서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2), 68-79.
- 정태연, 김지영, 김기범, 김양하 (2004). 문화의 새로운 차원 Tightness와 Looseness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187-188.
- 조근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조영호 (2002). 조직구성원의 개인주의-집합주의 성향과 심리적 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3), 89-112.
- 차재호, 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50-164.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규석 (1991a).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 1-19.
- 한규석 (1991b).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 (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 비교 연구: 현황 및 세계화 속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pp. 87-172). 서울:

4) 한국 사람들($M=3.20$)은 미국 사람들($M=3.90$)에 비해 자기 성장에 대한 집중(Promotion focus)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자기성장에 대한 집중이란 개인이 살아오면서 평소 얼마나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와 반대로 개인이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 자기보호에 대한 집중(Prevention focus)이며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한국인들($M=2.8$)이 미국인들($M=2.75$)에 비해 자기보호에 대한 집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4).

- 성원사.
- 한규석 (2003).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한성열, 이홍표 (1994).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논문 발표집, 357-367.
- Altemeyer, 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Au, K. Y. (1999). Intra-cultural variation :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4), 799-812.
-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 Sage/Halsted/Wiley.
- Berry, J. W., Segall, M. H., & Kagitcibasi, C. (Eds.) (1997).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 Boston : Allyn & Bacon.
- Bond, M. H. (1994). Into the heat of collectivism : A personal and scientific journey.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pp. 66-76). Thousand Oaks : Sage.
- Bond, M. H., & Smith, P. B. (1996). *Cross-cultural soc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205-235.
- Budner, S. (1962).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30, 29-50.
- Cha, J. H. (1994). Aspect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pp. 157-174).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
- Chan, B. (1998). How does Cantonese-English code-mixing work? In M. C. Pennington (Ed.), *Language use in Hong Kong at century's end*. Hong Kong : Hong Kong University Press.
- Chan, D. K-S., Gelfand, M. J., Triandis, H. C., & Tzeng, O. (1996). Tightness-looseness revisited : Some preliminary analys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1(1), 1-12.
- Choi, S. C., & Choi, S-H. (1994). We-ness :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pp. 57-84). Seoul :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Choi, S. C., & Choi, S-H. (2001). Cheong : The socio-emotional grammar of Korean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30(1), 69-80.
- Choi, S. C., & Kim, K. (2003). A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Korean self : In comparison of Western self. In K. S. Yang, K. K. Hwang, P. Pedersen, & I. Diabo(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ume 3*(pp. 29-42). Westport, CT : Greenwood Publisher.
- Douglas, M., & Wildavsky, A. (1982). *Risk and culture :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ysenck, H. J. (1954). *The psychology of politics*, London, U.K. : Routledge.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 W. W. Norton.
- Frenkel-Brunswik, E. (1949).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18, 108-143.
- Gabrenya, W. K., Jr. (1999). Psychological anthropology and the "levels of analysis" problem : We married the wrong cousin. In J.-C. Lasry, J. Adair, & K. Dion(Eds.), *Latest contributions to cross-cultural psychology*(pp. 333-351). Thousand Oaks, CA : Sage.
- Gelfand, M. J., Chan, D., Triandis, H. C., Yamguchi, S., & Nishii, L. (1998, August). Theory and empirical assessment of the cultural construct of tightness-looseness in the US and Japan. Post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ellingham, WA, USA.

- Georgas, J., & Berry, J. W. (1995). An ecocultural taxonomy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Cross-Cultural Research, 29*, 121-157.
- Goffman, E. (1963). *Stigma :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 Anchor Books.
- Hannan, M. T. (1971). *Aggregation and disaggregation in sociology*.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1996). *Sense-making as a method of practicing a critical pedagogy in the multi-cultural classroom*.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meeting, Chicago.
- Higgins, E. T., Shah, J., & Friedman, R. (1997). Emotional responses to goal attainment : Strength of regulatory focus as moder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515-525.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IMDS) (1999).
- Jamieson, D. W., & Zanna, M. P. (1989). Need for structure in attitude 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 383-406). Hillsdale, NJ : Erlbaum.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Vol 3*(pp. 1-49). Boston : Allyn & Bacon.
- Kandel, E. R., Schwartz, J. H., & Jessell, T. M. (1995). *Essentials of neural science and behavior*. Stanford, CT : Appleton and Lange.
- Kim, D., Pan, Y., & Park, S. H. (1998). High- versus low-context culture : A comparison of Chinese,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Psychology & Marketing, 15*(6), 507-521.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Y. Kashima(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ume 1*(pp. 247-259). Singapore : John Wiley & Sons.
- Kim, K., Lee, C-W., Hu, S-H., & Gelfand, M. J. (2004). Cultural tightness and loosenes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Xian, August 2-6, China*.
- Kim, U., Triandis, H. C., Kagitcibasi, C., Choi, S. C., & Yoon, G. (1996).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ousand Oaks : Sage.
- Kitayama, S., Matsumoto, H., Markus, H. R.,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urian, G. T. (1997). *The new book of world rankings*. New York.
- Lomax, A., & Berkowitz, N. (1972). The evolutionary taxonomy of culture. *Science, 177*, 228-239.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schel, W. (1977). The interaction of person and situation. In D. Magnusson, & N. S. Endler(Eds.), *Personality at the crossroads : Current issu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Hillsdale, NJ : Erlbaum.
- Neuberg, S. L. & Newson, J. T. (1993). Personal need for structure :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sire for simple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1), 113-131.
- Osgood, C. E., May, W. H., & Miron, M. S. (1975).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affective meaning*.

-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elto, P, J. (1968, April). The differences between "tight" and "loose" societies. *Transaction*, 37-40.
- Price, R. H., & Boufford, D. (1974). Behavioral appropriateness and situational constraint as dimension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79-586.
- Roberts, K. H., Hulin, C. L., & Rousseau, D. M. (1978). *Developing an interdisciplinary science of organizations*. San Francisco : Jossey-Bass.
- Rousseau, D. M. (1985). Issue of level in organizational research : Multilevel and cross-level perspectives. In L. L. Cummings, & B. M. Staw(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values*. Westport, CT : Quorum Books.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egall, M. H., & Kagitcibasi, C. (1997). Introduction to volume 3.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Vol 3*(pp. xix-xxxv). Boston : Allyn & Bacon.
- Smith, P. B., & Bond, M. H. (1993).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s : Analysis and perspectives*. Boston : Allyn & Bacon.
- Sternberg, D. I. (1982).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A review article. *Journal of Asian Studies*, 42(1), 90-104.
- Strauman, T. J., & Higgins, E. T. (1987). Automatic activation of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syndromes : When cognitive structures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04-1014.
- Strauss, C., & Quinn, N. (1997).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meaning*.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mner, W. G. (1906). *Folkways*. Boston : Ginn.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pp. 41-133).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s : McGraw-Hill.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 Suh, E. M. (2002). Cultural influences on personality. *Annual of Review of Psychology*, 53, 133-160.
- United Nations. Dept of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Statistical Office (1998). *Statistical yearbook*(37th Ed.) NY : United Nations.
- Voronov, M., & Singer, J. A. (2002). The myth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 A critical review.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461-480.
- Webster, D. M., & Kruglanski, A. W.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49-1062.
- Whiting, B. B., & Whiting, J. W. M. (1975). *Children of six cultures : A psycho-cultural analysi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Yu, A. B., & Yang, K. 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p. 239-250). Thousand Oaks : Sage.

Cultural 'Tightness-Looseness' : A Multilevel Theory

Taeyun Jung
Chung-Ang University

Kibum Kim
Sungkyunkwan University

Michele J. Gelfand
University of Maryland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re has been an explosion of research concerning the influence of culture on social psychological phenomena. The dimens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has been the focus of much empirical investigation, as evidenced in the abundance of published articles as well as books devoted to this dimension. As a result of the immense success of research on individualism-collectivism, there has been a dearth of research on other dimensions of culture. Thus, the central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pand upon cultural theories in social-organizational psychology by introducing theoretical approach to and empirical evidence for another cultural dimension, *cultural tightness-looseness*. Tightness-looseness has been defined as the degree to which norms are clearly defined and reliably imposed within cultures (Pelto, 1968). Specifically, a multi-level theory is reviewed, which examines cultural tightness-looseness in modern and complex societies, and integrates research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including anthropology, sociology, and psychology, and illustrates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ecocultural and historical factors, the structure of situations, and psychological processes in tight and loose cultural systems. Finally, empirical evidence for this theory was covered.

Key words : dimensions of culture,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 norm, tightness-looseness, multilevel theory

원고접수 : 2005년 7월 11일
심사통과 : 2005년 8월 10일